

생활정보

가을엔 마음의 양식을...



1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1, 2)

박경철 지음 / 리더스북 출판

시골 외과 의사가 병원이라는 풍경 속에서 깊고 따뜻한 시선으로 건져 올린 35개의 에피소드를 엮은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은 우리가 찾는 삶의 진정성은 삶 자체에 있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



2 알래스카, 바람같은 이야기

호시노 미치오 지음 / 청어람미디어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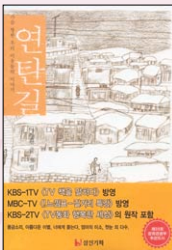
알래스카의 자연과 작가가 만난 사람들, 신변의 일상과 사진작업,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담담하지만 감동적으로 들려주고 있다. 전문 사진작가가 수록한 알래스카의 대자연을 사진으로 볼 수 있다.



3 장미의 이름(상, 하)

움베르토 에코 지음 / 열린책들 출판

모종의 임무를 띄고 14세기 중세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 잠입한 영국의 수도사 윌리엄을 주인공으로 한 추리소설이다. 철학, 역사학, 미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소설에 녹여냈다.



4 연탄길(1, 2, 3, 4)

이철환 지음 / 삼진기획 출판

작지만 소중한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이 책은 전부 실화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작가 자신이 입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생들과 친구, 이웃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7년에 걸쳐 모은 것이다.



5 비명을 찾아서(상, 하)

복거일 지음 / 문학과지성 출판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이 실패했다는 가정에서 출발, 1980년대 우리말과 역사가 송두리째 말살되고 민족적 뿌리가 없어진 상태 속에서 식민지하의 서울을 참담하게 살아가는 반도인의 1년을 쫓은 작품으로 비판적 성찰을 작품속에 내비치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살았구나...

스무 살 시절 여름 방학 때 강원도 장성의 탄광에서 석탄을 캐던 일이 있다. 거의 쉬지 않고 여덟 시간 탄을 캐내는 일이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다. 나도 모르게 신음 소리가 나오고 욕이 목구멍까지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허리가 부러져 나가는 것 같았고 팔근육이 저절로 흐늘흐늘거렸다.

막장 안의 공기는 탄으로 인하여 시커멓다. 얼굴도 새까매질 수밖에. 이마에서 흐르는 까만 땀이 계속 눈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눈알이 시큰거렸다. 손등으로 눈을 비비는데 손등에 묻었던 탄덩어리가 눈에 묻어 들어가 까악 소리를 지를 뻔했다. 꼬마 때처럼 엄마! 앙앙앙 엉엉엉 울면서 삽을 내던지고 굴속에서 뛰쳐나가고 싶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조원들을 쳐다봤을 때 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각자의 캡 램프로 상대방의 앞을 비추어 주며 쉬지 않고 묵묵히 석탄을 퍼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도 나처럼 시커먼 땀이 줄 줄 흘러내렸지만 그들은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과묵하게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거였다.

‘어휴, 저자들은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여덟 시간의 작업이 끝나고 굴속을 거의 빠져나왔을 때 내 옆에 있던 나이트 광부가 갑자기 긴 한숨을 푹 내쉬며 나직하게 입술을 움직였다.

“오늘도 살았군...”

그리고 나서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니 그들 모두의 얼굴에도 오늘 사고 없이 무사히 막장 안에서 빠져나오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빛이 역력했다. 그들도 역시 인간이었다. 다만 작업장에서 만큼은 묵묵하게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다.

< 출처 :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



알리는 말씀

검사협회 소식은...

검사협회 소식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협회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발간하는 선박검사 기술협회의 홍보지입니다. 협회소식 및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글을 게재코자 하오니 아래 사항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동
- 각종 검사제도개선 및 해양수산정보
-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대책 등

☎ 연락처 : 전략기획팀 | TEL. 032-260-2226 | FAX. 032-260-2315
| E-mail. youngmin@kst.or.kr

